

광주시 발주 공사 지연 속출…소송도 잇따라

예산 제때 확보 못해 업체측 ‘간접비 소송’으로 이어져
시의회, 적절한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주문

광주시가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체 발주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해 업체 측의 간접비 소송 제기도 잇따라 가뜰이나 예산 상황이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공사 업체의 간접비 소송은 총 5건에 이른다. 시공사는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사 원가 외에 투입된 인건비와 장비 대여료, 사무실 임대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 광주 용두-담양 대전 고속도로 확장 공사의 경우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토지 보상이 10개월가량 늦어졌고 공사 기간도 2년5개월 지연되면서 업체 측은 3억1천만원의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최근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조정금(배상금)으로 2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서창천 고항의 강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1억5천만원), 봉선배수지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 지연(7억1천만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공사 중단(1억6천만원), 무등경기장 국민체

육센터 공사 중단(1억2천만원) 관련 간접비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미확보,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지연 사례가 증가하면서 간접비 소송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 63건(토목 37건, 건축 설비 26건) 중 공사가 일시 정지된 사업은 3건으로 확인됐다. 월전로-무진로 도로 개설 공사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제2순환도로 학운·C 교통 정체 개선 공사는 민원 발생으

로 공사를 중단했다. 하남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올해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시설비 149억원을 요구했지만 50억원 반영에 그치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한 달 반 동안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42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데다, 시공사가 비용을 선(先) 집행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완전히 중단된 사업과 다른 부서의 사례까지 합할 경우 간접비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40억원 이상 규모 건설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기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예산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시 유튜브 채널 ‘빛튜브’ 올해의 SNS 최우수상 영예

재미·정보 담은 콘텐츠…구독자 70% 이상 증가

광주시는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 ‘빛튜브’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2024 올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역지자체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의 SNS는 소셜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의 비영리단체인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등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등이 후원하는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한해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 현황을 종합 평가해 기업·국민과 활발히 소통한 기업·기관에 수여한다. 광주시 유튜브 ‘빛튜브’는 재미와 정보를 모두 담은 친근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구독자가 지난해 말 3만4천명에서 5만8천명으로 70% 늘었고 조회수도

지난해보다 200만회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새로 선보인 ‘별☆들에게 물어봐’, ‘해피버스테이’ 코너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정책 담당자가 직접 전하는 정책 토크쇼 ‘별☆들에게 물어봐’와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광주만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해피버스테이’는 지난달 말 기준 채널 내 콘텐츠 조회수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4편이나 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박광석 대변인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지난 23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열린 '2024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성과공유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글로벌 현장연수로 산업인재 도약 나선다

도, 농축업·어업·제조업·문화 등 7개 분야 성과 공유회

전남도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3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24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 성과공유회'를 열어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뤄갈 것을 응원했다. 성과공유회에선 8박10일 일정으로 유럽·미주를 방문한 연수생,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업, 산림

원에, 어업, 제조업, 신산업, 문화, 스포츠 등 7개 분야별 연수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산업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연수 참여자 간 글로벌 산업 동향과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지속적 발전을 위해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농축업 분야에 참여한 함평의 한 연수생은 “유기농업 연구의 메카인 스위

스 유기농연구소에서 선진국의 유기농 기술을 경험했다”며 “친환경 농업 중심지인 전남과 함께 국제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 전남의 유기농업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남의 한 어업 분야 연수생은 “세계 최대 수산양식 박람회인 노르웨이 노르피시 2024 방문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스마트·친환경 양식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전남도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는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산업역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존 농축업, 어업, 신산업, 제조업, 문화 분야에 더해 올해는 산림원예, 스포츠 분야를 신설해 총 7개 분야 15명씩 총 105명의 지역산업인재가 연수에 참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배워 돌아온 산업 인재들을 응원했다. 김영록 지사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연수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가 산업 현장과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돼 각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 ‘손자녀돌보미 지원’ 전국 주목…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광주시의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이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로얄호텔에

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손자녀돌보미 지원제도’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틈새돌봄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20-30만원)을 지원하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

고 있다. 최근 서울시·경기도를 중심으로 손자녀돌봄 지원사업의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남도·부산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뻗는다.
- 3 운전자와アイコン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namdo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llanam Provincial Police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Education Institute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 Provincial Education Institute 도로교통공단 Korea Highway Corporation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GTCOL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Gwangju Metropolitan City Traffic Culture Institute 전라남도교통문화연구소 Jeollanam Traffic Culture Institute 광주광역시도시교통사업소 Gwangju Metropolitan City Urban Traffic Project Office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